

特別講演要旨

2000年代를 向한 韓國農業의 變化와 開發戰略

韓國農村經濟研究院·研究委員 許 信 行

2000年代의 韓國農業은 어떤 形態로든지 엄청난 變化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變化의 形態를 옳게 把握하고 發展方向을 제대로 잡아 주지 않으면 韓國農業은 걸잡을 수 없는 퇴화를 거듭, 經濟全體의 成長發展을 가로 막게 될 뿐만 아니라 社會의 二重構造를 낳고 都農間의 갈등과 심한 마찰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2000年代의 韓國農業은 國內外的 經濟與件에 따라 많은 變化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세계는 알빈 토플러가 갈파한 바와 같이 農耕社會라는 제 1의 물결과 產業社會로 이어지는 제 2의 물결을 거쳐 이제 先進國을 중심으로 하여 제 3의 물결인 情報社會로 진입하고 있다. 제 3의 물결 속에서는 情報과 技術이 발달, 모든 생산분야에서 劃期的인 生産性 向上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石油를 代替할 수 있는 太陽에너지와 바이오매스 등 새로운 에너지源들이 開發됨으로써 장래 세계의 에너지 需給事情은 밝아 보인다. 그리고 世界的 食糧需給事情도 고도의 기술과 豊富한 資本을 가진 先進國에서는 好轉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韓國과 같이 土地資源이 稀少하고 農業開發에 대한 投資를 많이 配分하지 않고 있는 國家에서는 食糧의 需給事情은 惡化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國內의 經濟與件도 엄청난 變化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國民의 높은 教育水準과 지난 20餘年間 쌓아 올린 開發經驗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貯蓄을 늘리고 技術水準을 向上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韓國 經濟는 高度成長을 지속, 先進隊列의 產業社會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產業構造가 農業 아닌 鑛工業과 서비스部門이 중심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就業構造도 非農業部門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農村의 人力은 繼續 流出되어 農業勞賃은 상승하는데 반해서 製造業分野에서 生産되는 農機械와 農業生産資材는 저렴해질 것이다.

韓國農業은 國民經濟의 比重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축소하게 되겠지만, 급증하는 人口를 부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더욱 높여가게 될 것이다. 食糧의 安保라는 차원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더해가는 韓國農業의 4千年 歷史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968年을 轉換點으로 하여 傳統的인 自給自足的 形態의 農業에서 2000年代의 商業農을 지향하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商業農時代에 접어들지 못했으며 빨라야 2000年을 지나서 效率的인 商業農이 정착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렇게 볼때 1968년부터 2000년까지의 32年이라는 한 世代의 期間이 바로 韓國農業의 轉換期요, 온갖 形態의 調整과 適應을 必要로 하는 陣痛期라고 말할 수 있다.

利潤追求의 商業農을 지향하는 轉換期農業 아래서 일어나는 變化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食品消費形態의 變化로 꼽힌다. 穀物 중심의 消費形態로부터 畜産物이나 菜蔬 및 果實 등 高級農産物の

消費를 확대시키 方向으로 食生活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같은 食品消費形態의 變化는 市場 메카니즘을 통해 農業生産構造를 바꾸게 된다. 따라서 2000 年代의 農業構造는 成長品目 위주로 개편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00 年代의 商業農을 지향하는 轉換期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地價와 農業勞賃이 급상승하는데 반해서 農機械와 其他資材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화로 韓國農業을 土地節約적이고 勞動節約적인 形態, 즉 資本集約적인 高度技術農業의 方向으로 發展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資本集約적인 高度技術農業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려면 먼저 規模의 經濟를 추구할 수 있게끔 農業構造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既存의 農耕地와 山野를 포함하여 機械化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대규모로 再整備하고, 農家를 선별적으로 育成하여 先進自立農으로 하여금 농업에 專門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農業生産技術의 革新이며, 品種改良은 물론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遺傳工學을 통해 새로운 品種을 개발해냄으로써 土地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보다 우수한 肥料와 農藥의 開發이 지속되어야 하며, 韓國農業의 여건에 알맞는 機種의 발명도 부단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2000 년대의 農業生産을 高能率化시키기 위해서는 人力開發에 많은 投資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商業農을 지향하는 轉換期 아래서는 農民들이 せ값을 받고 貯蓄을 늘려 資本을 축적할 수 있도록 農産物價格을 支持함과 동시에 輸入을 抑制, 海外農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2000 年代의 韓國農業은 效率的인 商業農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